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의 영향 관계 및 합창 교양수업의 조절 효과 검증

한가영* · 조성찬** · 한경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대학생활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대학의 교양교과목 중 교양합창 수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는 정서적 적응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관계성($\beta=-.405$), 긍정적 관계성($\beta=.207$), 유능감($\beta=.193$)의 순서대로 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 심리욕구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합창 교양 수업의 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었다. 합창 교양수업의 조절변수 중 수업내용만족도는 유능감($\beta=.150$), 부정적 관계성($\beta=.245$)과 정서적 적응 영향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유능감은 수업내용만족도의 정(+)의 조절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부정적 관계성은 수업내용만족도의 정(+)의 조절효과에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정(+)의 영향력으로 역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부정적 관계성은 교수 만족도의 정(+)의 조절효과에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정(+)의 영향력으로 역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양 합창수업이 인성함양의 첫 번째인 대학의 교양과목 커리큘럼에 필요조건임을 입증해줌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의 정서적 적응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 주제어: 기본적 심리욕구, 정서적 적응, 합창, 교양수업, 조절 효과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기본적 심리 욕구
 - 2.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
 - 3. 합창수업과 정서적 적응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2. 측정 도구 3. 분석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 교신저자

I. 서론

대학은 여러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대표적인 고등 교육기관이다. 즉, 대학의 많은 기능 중 대표적인 기능은 이 사회를 이끌고 지도해나갈 주역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기능에서 주목할 점은 성인이 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의무사이에서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책임과 판단력, 결정력 등을 함께 길러나가야 하는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과 인성적 자질 외에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안에서의 학습자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정의로운 사고와 태도를 함양하여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교양교과목은 필수적이다(서창원 외, 1994). 그러나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자유와 자율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청년기가 되어서 도덕성, 인간화, 타인 배려, 인내, 절제 등의 결핍으로 인간관계 형성과 대학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송명자, 이현림, 2008). 대학생이 공동체적 삶을 위한 역량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양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으로 대학은 인성 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장과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인성 교육 강화를 우선시 하고 있다(지희진, 2013). 이러한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파악하고 대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후마니타스를 인식시키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학의 교양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서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진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이종철 외, 2008). 다양한 교양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김정목, 2010; 강현진 외, 2010; 임진선 외, 2011; 조성원 외, 2012; 김명주, 2013; 한수정 외, 2013; 김우경 외, 2013; 조한범, 2013; 윤소원 외, 2014; 이한경, 2014; 이강우 외, 2015)을 살펴보면 교양수업을 통한 수업 만족, 지속적 참여 의도 등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양수업 중 합창수업을 통한 만족도가 대학생들의 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이를 연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한경,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대학생들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대학의 교양교과목 중 교양합창 수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안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필수 전공과목 수강 이외에 자유롭게 선택한 예술·문화 교양과목 중 음악분야에 하나인 교양합창과목의 효과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 합창 교양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인성함양의 첫 번째인 대학의 교양과목 커리큘럼에 필요조건임을 입증해줌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의 정서적 적응에 질을 높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합창 수업의 효과

합창은 여러 성부로 나누어 서로 다른 가락의 노래를 부르고 조화된 화성을 이루는 행위이다(윤성원, 2016). 많은 대학에서는 음악 분야의 교양과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교과목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음악 관련 교양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였다(박지연, 2014). 합창활동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유덕희(1990)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 지도력 발휘, 사교성과 순응성, 책임감과 자신감을 합창 활동을 통하여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시작으로, 김명환과 한길환(2011)은 협동심, 안정된 인격체, 책임감, 조화로운 인격이 청소년의 합창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종모(2012)는 학생들의 합창 활동은 성취감,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합창 활동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으며, 자기 통제, 협동심, 책임감 등 사회성의 계발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류미혜, 2009).

2. 기본적 심리 욕구

기본적 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theory)에 구성되어 있는 미니 이론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욕구에는 자율성·유능감·관계성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Ryan & Deci, 2000).

자율성(autonomy)이란, 외부 영향이 있더라도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Deci & Ryan, 2000). 즉,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자발적 선택을 바탕으로 행해지고, 자신이 행동의 주체인 것을 뜻한다(Ryan & Grolnick, 1985). 자기 스스로 목표와 행동을 결정하여 이를 행할 때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며, 자신의 행동에서 심리적 자유를 느낀다(Luyckx et al, 2009;

Ryan & Deci, 2000). 유능감(competence)은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Reeve, 2005). 즉,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지닌 능력과, 기술, 재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과 도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유능감은 습득된 기술이나 역량과는 다르게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Deci & Ryan, 2002). 관계성(relatedness)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태되기 보다는 중요하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끼는 것이다(Baumeister & Leary, 1995). 이는 타인과 연결되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싶은 감정을 뜻한다(Ryan & Deci, 2000).

3. 정서적 적응

적응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을 환경에 맞도록 변화시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이경림, 박재국, 2007).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은 환경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활은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점이며, 이때 형성되는 적응이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정효주, 정향인, 2012).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일반적 적응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적응은 네 가지 적응 중 학생들의 일반적 심리 문제와 신체 건강 문제 등을 말한다.

4.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 관계에서 자율성·유능감·관계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수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기본적 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정서적 적응이 상승된다고 하였다.

Grolnick과 Ryan(1989)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지각된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김아영 등(2008) 연구에서는 타인의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경우, 불안감이 증가하여 자율성이 개인의 정서적·인지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07)는 대학 신입생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유능감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신지영 등(2012) 연구에

서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영신 등(2002)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능감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정(2011)은 대학생의 유능감(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 몰입과 좋은 학업 성취를 이루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대학생의 학습 활동 등에서 얻게 된 자신감을 통하여 정서적 적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된다.

Cassidy 등(1992)의 연구에서는 초기 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이들이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대학생활과 같은 독립적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다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계성이 낮은 사람들은 열등감 및 우울, 슬픔이 강화되어 개인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권석만, 1995). 관계성의 정도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가 가늠되며, 이에 따라 사회생활 참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며 관계성 욕구가 대학생활의 정서적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합창수업 만족도와 정서적 적응

대학의 교양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진 선택과목 중의 하나이며(이종철 외, 2008), 이들 중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사회적응 및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한수정, 한경훈, 2013; 연은모 외, 2014; 조원경, 한정섭, 2014; 박명숙, 2015)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악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자들은(Aldridge, 1994; Hanser & Thompson 1994; Knight & Rickard, 2001) 음악이 가지는 육체적·정신적 치유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이 아닌 전체로서 협동하여 표현을 하고, 합창하는 주체들 사이에 인격적이면서도 상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협동심과 책임감, 그리고 개인·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이며 심미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심혜숙과 박정미(2003)는 노래, 작곡, 즉흥연주, 음악 감상은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한수정 외(2014)는 음악과 관련된 수업은 비언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정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정서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합창 교양수업은 각 욕구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증폭된 안정적인 적응으로 이끌 수 있는 조절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대학에서 음악교양으로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합창과목은 한 파트에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파트들이 동시에 노래하는 데서 생겨난 목소리의 앙상블이다. 개개인의 개성적 표현보다는 전체의 일원으로서 협동하여 표현하게 되어 학생들의 음악성은 물론이며 사회성과 협동성도 기를 수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의 영향관계에서 합창수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의 관계에서 합창수업의 만족도는 조절 효과가 있는가?

2. 연구 절차

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대학 3개교에서 합창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합창 교양수업의 효과 및 정서 변화를 측정하고자 수업 마지막 시점인 15주차에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총 151명이었으며, 설문항목의 5항목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11부와 불성실 응답(모든 항목의 동일 답변)으로 판단되는 5부를 제외한 135부의 응답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2. 합창 교양수업의 개요

합창에 중점을 둔 총 15주간의 합창교양수업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향상 및 안정적인 정서적 적응을 목적으로 합창 본질의 어우러짐을 체험하고 무대에서 직접 연주하는 것을 진행하였다. 수업 내용은 음악의 이론부터 합창과 뮤지컬의 역사 및 각종 영상물을 통하여 많은 합창의 세계를 접하고, 화음의 중요성과 소리의 활용법을 이해하여 직접 무대에 서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곡의 선곡은 TV 및 SNS를 통하여 인기를 얻은 곡들을 4성부로 편곡하였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안무도 병행하여 흥미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3. 측정 도구

3.1. 자율성

자율성(autonomy)은 자신의 자발적 선택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항목은 김은주(2007)가 제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신이 행동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신념이며 통제와 구분된 개념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나다운 모습을 잘 유지하는 편이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항목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722로 나타났다.

3.2. 유능감

유능감(competence)은 지속적인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Deci & Ryan, 2002). 본 항목은 김아영과 이명희(2008)가 제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항목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710으로 나타났다.

3.3. 관계성

대학생의 관계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적 관계성과 부정적 관계성의 2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본 항목은 Lee와 Robbins(1995)가 제안한 사회유대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항목은 개인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인식하는 유대감에 대한 자신감과 어려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긍정적 관계성을 묻는 4항목('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느낀다', '나는 또래 친구들을 잘 사귄 수 있다', '나는 내 동료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나는 타인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과 부정적 관계성을 묻는 3항목('나는 타인의 일이나 단체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나는 타인과 거리감을 느낀다', '나는 단체 활동에서 실망하는 일이 있다')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 관계성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 관계성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항목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긍정적 관계성이 .776, 부정적 관계성이 .650으로 나타났다.

3.4. 정서적 적응

대학생의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은희(1992)가 제시한 대학 생활적응 척도에서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감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 및 정서적 적응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6문항('나는 불행하고 우울하다고 느낀다', '나는 최근 차분하지 못하고 심술궂다고 느껴진다', '나는 해야 할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나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캠퍼스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진다')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측정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증상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항목의 결과를 역채점(Reverse coding)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항목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842로 나타났다.

3.5. 합창수업 만족도

합창수업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업내용 만족도와 교수 만족도의 2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본 항목은 각각 한수정(2013)이 제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본 항목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수업내용 만족도가 .942, 교수 만족도가 .880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SPSS 22.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K지역, I지역에 소재한 대학생이며, 교양 합창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강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83명(61.5%)으로 여성 52명(38.5%)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연령은 19~22세 64명(47.4%), 23~26세 64명(47.4%), 27~30세 7명(5.2%)로 20세 초·중반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구성 수는 4~5명의 가족 수가 106명(78.5%), 2~3명의 가족 수가 26명(19.3%)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부모나 친척의 가정 50명(37.0%), 자취 37명(27.4%), 자가 26명(19.3%), 기숙사 21명(15.6%)로 다양한 주거 형태를 나타내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빈도	%
성별	남	83	61.5
	여	52	38.5
연령	19~22세	64	47.4
	23~26세	64	47.4
	27~30세	7	5.2
가족 수	혼자	1	.7
	2~3명	26	19.3
	4~5명	106	78.5
	6~7명	2	1.5
거주 장소	기숙사	21	15.6
	자가	26	19.3
	자취	37	27.4
	부모나 친척의 가정	50	37.0

2. 측정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 결과

2.1. 기본적 심리욕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 결과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인 자율성·관계성·유능감을 측정한 항목들이 동일 개념을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정보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인 주성분 분석과 요인들 간 상호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며 회전하는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과정에서 요인적재량과 공통성은 0.4 이상,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인 변수들만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요인분석 결과, 표본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KMO값은 .88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근사 χ^2 값은 464.846($p < .01$)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총 분산설명력은 63.41%로 기본적 심리욕구를 총 63.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관계성’, ‘부정적 관계성’, ‘자율성’, ‘유능감’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신뢰성 검정을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

다. 검증 결과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650~.776으로 .6이상의 적합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표 2> 기본적 심리욕구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요인	측정 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	Cronbach's α
긍정적 관계성	긍정1	.847	.729	2.241	18.625	.776
	긍정2	.778	.627			
	긍정3	.771	.644			
	긍정4	.580	.563			
자율성	자율1	.814	.670	2.064	15.880	.722
	자율2	.786	.685			
	자율3	.746	.579			
유능감	유능1	.818	.688	1.946	14.973	.710
	유능2	.807	.696			
	유능3	.709	.549			
부정적 관계성	부정1	.816	.669	1.811	13.934	.650
	부정2	.736	.640			
	부정3	.652	.504			

KMO=.86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chi^2 = 464.846$, $df=78$, $p<.01$)

2.2. 합창 수업 만족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

합창 수업 만족도의 측정한 항목들이 동일 개념을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본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KMO값은 .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 χ^2 값은 1464.134($p<.01$)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총 분산설명력은 69.50%로 합창수업 만족도를 총 69.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업 내용 만족’, ‘교수 만족’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신뢰성 검정을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880~.942로 .6이상의 적합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표 3> 합창수업 만족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요인	측정 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력(%)	Cronbach' s α
수업내 용 만족	내용1	.873	.799	6.130	43.786	.942
	내용2	.859	.796			
	내용3	.800	.745			
	내용4	.769	.679			
	내용5	.756	.742			
	내용6	.751	.640			
	내용7	.747	.609			
	내용8	.735	.622			
	내용9	.734	.604			
교수 만족	교수1	.859	.812	3.599	25.707	.880
	교수2	.789	.711			
	교수3	.786	.629			
	교수4	.690	.735			
	교수5	.642	.608			

KMO=.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chi^2 = 1464.134$, $df=91$, $p<.01$)

2.3. 측정 항목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 항목의 기술통계량과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율성의 평균은 3.659, 유능감 3.427, 긍정적 관계성, 3.407, 부정적 관계성 2.434, 수업내용 만족도 4.218, 교수 만족도 4.425, 정서적 적응 3.582로 나타났다. 기본적 심리 욕구에서는 자율성(3.6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합창 수업의 만족도는 교수에 대한 만족(4.425)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자율성, 유능감, 긍정적 관계성, 교수 만족, 정서적 적응, 수업내용만족은 부정적 관계성을 제외한 측정 항목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관계성은 다른 측정 항목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4> 측정항목의 기술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율성	3.659	.703	1.300	5.000
유능감	3.427	.740	1.670	5.000
긍정적 관계성	3.407	.567	2.000	5.000
부정적 관계성	2.434	.732	1.000	4.330
수업 내용 만족	4.218	.722	1.780	5.000
교수 만족	4.425	.601	2.000	5.000
정서적 적응	3.582	.730	1.670	5.000

<표 5> 측정항목의 상관관계

변수	자율성	유능감	긍정적 관계성	부정적 관계성	수업 내용 만족	교수 만족	정서적 적응
자율성	1						
유능감	.211**	1					
긍정적 관계성	.354***	.125	1				
부정적 관계성	-.187**	-.328***	-.364***	1			
수업 내용 만족	.082	-.020	.189**	-.121	1		
교수 만족	.146	.122	.080	-.119	.681***	1	
정서적 적응	.268***	.368***	.406***	-.559***	.176**	.212**	1

* : $p < .1$, ** : $p < .05$, *** : $p < .01$

3. 검증 결과

3.1.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자율성, 긍정적 관계성, 부정적 관계성, 유능감)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정서적 적응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인 자기결정성 요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자기상관을 검토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1.842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증명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VIF(분산 팽창요인)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153 ~ 1.280으로 기준값이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 유능감($p<.01$), 긍정적 관계성($p<.01$), 부정적 관계성($p<.01$)이 종속변수인 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관계성이 높을수록($\beta=-.404$) 정서적 적응은 낮아졌으며, 유능감($\beta=.190$), 긍정적 관계성($\beta=.267$)이 높을수록 정서적 적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정서적 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0.2%이며, 부정적 관계성($\beta=-.405$)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의 영향관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p값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정서적 적응	상수	2.711	.532		5.094	.000***		
	자율성	.081	.076	.078	1.055	.294	.846	1.182
	유능감	.190	.072	.193	2.650	.009***	.867	1.153
	긍정적 관계성	.267	.099	.207	2.701	.008***	.781	1.280
	부정적 관계성	-.404	.076	-.405	-5.304	.000***	.786	1.272
$R^2 = .402$, $\text{Adj } R^2 = .384$, $F=21.891$, $p=.000$ Durbin-Watson= 1.842								

* : $p<.1$, ** : $p<.05$, *** : $p<.01$

3.2.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에서 수업 내용 만족도의 조절 효과 검증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업 내용 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생성하였고,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효과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는 앞선 다중회귀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같으며,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수업 내용 만족도가 추가되어 R^2 값이 0.8%로 증가하였으나 결정계수 증가분은 유의하지 않았다.

수업 내용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변수가 추가되어 R^2 값이 7.1%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1$) 전체 설명력은 48.1% 이다. 상호작용항을 검증한 결과 유능감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beta=.150$, $p<.1$), 부정적 관계성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beta=.245$, $p<.01$)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7>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의 관계에서 수업 내용 만족도의 조절효과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자율성(A)	.081	.078	.078	.075	.102	.098
유능감(B)	.190	.193***	.197	.199***	.187	.189**
긍정적 관계성(C)	.267	.207***	.249	.193**	.209	.162**
부정적 관계성(D)	-.404	-.405***	-.397	-.398***	-.428	-.429***
수업 내용 만족도(E)			.090	.089	.087	.086
(A) × (E)					.079	.055
(B) × (E)					.211	.150*
(C) × (E)					-.062	-.037
(D) × (E)					.342	.245***
F 값	21.891***		17.931***		12.854***	
R^2	.402		.410		.481	
ΔR^2			.008		.071***	

* : $p<.1$, ** : $p<.05$, *** : $p<.01$

3.3.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에서 교수 만족도의 조절 효과 검증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수 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앞선 합창 수업의 만족도 조절효과 검증과 같이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본적 심리욕구 요인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는 앞선 다중회귀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같으며,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교수 만족도가 추가되어 R^2 값이 1.3%로 유의하게 증가하여($p<.1$) 전체 설명력은 41.5%이다. 합창 수업의 교수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116, p<.1$) 정서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변수가 추가되어 R^2 값이 5.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5$) 전체 설명력은 47.0%이다. 상호작용항을 검증한 결과 부정적 관계성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beta=.258, p<.01$)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8> 기본적 심리욕구와 정서적 적응의 관계에서 교수 만족도의 조절 효과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자율성(A)	.081	.078	.067	.064	.074	.074
유능감(B)	.190	.193***	.182	.184**	.196	.199***
긍정적 관계성(C)	.267	.207***	.266	.207***	.207	.161**
부정적 관계성(D)	-.404	-.405***	-.396	-.397***	-.440	-.441***
교수 만족도(E)			.141	.116*	.171	.141*
(A) × (E)					.098	.055
(B) × (E)					.129	.069
(C) × (E)					.091	.041
(D) × (E)					.436	.258***
F 값	21.891***		18.335***		12.338***	
R^2	.402		.415		.470	
ΔR^2			.013*		.055**	

* : $p<.1$, ** : $p<.05$, *** : $p<.01$

V. 결론 및 시사점

대학의 예술교양교육 비중은 다원적이고 가변적인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양과목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간의 통합적 접근 유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분야에 편중되어진 지식습득만으로는 대학교육의 역할을 충족 할 수 없다. 예술이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후마니타스의 본질을 찾아야한다. 특히, 교육적 가치와 감성, 상상력, 사고력 증진 및 학문적 지식 습득은 물론 자아 성숙(장지원, 2012) 모두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한다. 음악교양과목을 통하여 사회적응 및 정서적인 안정감과 협동심은 물론 음악을 생활에서 적용 및 활용하며 전공 외에 다른 학문이나 문화, 예술과 통합, 융합하는 능력을 통해 미래사회에 발맞춰 갖추어야 할 역량(조성기, 2014)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합창이라는 교양수업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하며 학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 기본적 심리욕구를 수업만족도와 함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공 교과목의 본질적 의미는 물론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목표와 핵심의 초점을 명확히 함을 물론 사회 초년생에게 갑작스레 적용되어지는 무질서한 통합으로 인한 혼란 초래를 예방할 수 있다(주성희, 2015). 이에 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서적 적응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이 관계에서 합창 교양수업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는 정서적 적응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관계성($\beta=-.405$), 긍정적 관계성($\beta=.207$), 유능감($\beta=.193$)의 순서대로 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을 긍정적 관계성과 부정적 관계성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부정적 관계성이 정서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에 있어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변수임에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긍정적 관계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율성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대학생의 자율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직면하게 되는 자율

성의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안정적인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율성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본적 심리욕구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합창 교양 수업의 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었다. 합창 교양수업의 조절변수 중 수업내용만족도는 유능감($\beta=.150$), 부정적 관계성($\beta=.245$)와 정서적 적응 영향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유능감은 수업내용만족도의 정(+)의 조절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합창수업의 커리큘럼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수강생의 경우,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합창수업은 타 교양수업과 다르게 참여와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수강생이 자신의 소질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합창수업은 수강생의 자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참여와 의욕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정적 관계성은 수업내용만족도의 정(+)의 조절효과에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정(+)의 영향력으로 역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수업내용의 만족도로 인하여 기존 부정적인 관계성의 욕구가 합창수업을 통하여 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은 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보고 된다.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관계성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을 어렵게 한다. 타인과의 협업이 중요시 되는 합창의 특성상 합창수업을 통하여 관계성의 어려움을 줄이게 되고, 안정적인 정서적 적응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관계성은 교수 만족도의 정(+)의 조절효과에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정(+)의 영향력으로 역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역시 교수의 학생에 대한 지도가 부정적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합창수업은 단순 지식전달이 아닌, 구성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각 역할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담당교수는 수강생을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대학생의 관계성 욕구를 회복하여 안정적인 정서적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합창 교양수업의 조절적 역할을 검정함으로써, 아직까지 교양수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음악 교양수업 분야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합창 교양수업을 통하여 대학생의 부정적인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안정적인 정서적응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으

며, 교양 수업이 단순 교육목적이 아닌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통 음악 관련 교양수업은 음악 비전공학생이 접할 수 없는 수업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합창 교양수업의 교수는 낯선 수업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수업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교양수업 수강생으로 이루어졌음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별, 전공별 등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다른 선행 변수를 고려하여 합창 교양 수업의 조절 역할을 살펴봄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의 효과를 횡단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합창교양 수업 전과 수업 후 등 연구 대상의 특성을 여러 시점에 걸쳐 관찰하여 변화와 그 발생 요인을 파악하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합창 수업의 효과와 대학생의 안정적인 정서적 적응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후속연구가 활성화되어 대학 음악교양 교육을 통한 바른 가치관 확립과 이들이 삶 속에서 음악과 함께하여 삶이 더 풍요롭길 바라며, 본 연구가 그 기반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헌진, 윤용진. (2010). 교양 수영수업의 재미거리, 걱정거리와 운동지속의지와
관계. **여가웰니스학회지**, 1(2), 1-10.
- 권석만. (1995). **인간관계 심리학(젊은이를 위한)**. 서울; 학지사.
- 김명주. (2013). 여대생의 교양무용 몰입경험이 수업만족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193-204.
- 김명환, 한길환. (2011). ‘합창과 인성교육’: 합창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정담론, 5(2), 267-292.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우경, 차수정. (2013). 여대생의 교양무용수업 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연구**, 31(3), 65-87.
-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정목. (2010). 대학교양체육 재미요인과 체육 학습태도 및 수업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1), 319-330.
- 류미혜. (2009). 합창교육의 단계별 학습과정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음악교육공
학**, (9), 19-33.
- 박명숙. (2015). 대학 음악 교양교육에서 학습동기가 학습몰입, 교육만족도 및 학
습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음악교육공학**, (23), 1-16.
- 박영신 외.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교육
심리연구**, 16(2), 63-92.
- 박지연. (2013). 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현황 및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양종모. (2012).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음악교
육연구**, 41(2), 227-255.
- 연은모 외. (2014). 예술 고등학교 음악전공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탐
색적 연구. **음악교육연구**, 43(4), 163-185.
- 유덕희. (1990). 합창·합주활동이 학생들의 성격 및 학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음악교육연구**, 9, 1-21.
- 윤성원. (2016).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 탐구, **음악교육공**

학, 29, 21-39.

- 윤소원, 강수택. (2014). 대학 교양골프 참여자의 수업 만족이 운동 몰입, 운동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골프학회지**, 8(2), 99-112.
- 이강우, 이한경. (2015). 대학교양 체육수업 참여자의 신체조성, 자아존중감, 수업 만족도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1), 47-60.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육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종철 외. (2008). 교양 체육수업의 참여동기와 몰입경험 및 수업만족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7(2), 211-222.
- 이한경. (2014). 교양무용수업 참여 대학생의 재미요인, 수업만족 및 지속적 참여 의도와와의 관계.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5(2), 55-67.
- 임진선, 이철원. (2011). 대학생의 교양체육 수업만족, 심리적 웰빙과 지속의도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0(5), 275-283.
- 송명자, 이현림. (2008).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69-291.
- 서창원 외. (1994). 학생생활 질 개선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생의 태도 및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21.
- 심혜숙, 박정미. (2003).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05-527.
- 신지영 외.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9-35.
- 장지원. (2012). 21세기 대학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10(3), 183-197.
-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효주, 정향인. (2012). 3 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 조원경, 한정섭. (2014). 서울지역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음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요구분석연구. **음악교육연구**, 43(1), 189-228.

- 조성기. (2014). 음악 감상 학습을 위한 스마트러닝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음악교육공학**, 18, 231-249.
- 조성원, 박윤식. (2012). 교양체육 수업만족이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5), 903-913.
- 조한범. (2013). 교양 스노보드 수업의 재미 및 걱정요인과 수업 만족, 신체적 자기개념, 자아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스포츠과학연구논총**, 31, 25-47.
- 주성희, 이미선. (2015). 대학 교양 음악수업 지도방안 -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23(4), 59-77.
- 지희진. (2013).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5), 433-466.
- 한수정, 한경훈. (2013). 대학 신입생의 음악교과 교양수업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및 정서적응의 관계. **음악교육연구**, 42(4), 291-324
- Aldridge, D. (1994). Alzheimer's disease: Rhythm, timing and music as therapy. *Biomedicine & pharmacotherapy*, 48(7), 275-28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 Baumeister, Roy F., and Mark R. Leary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 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 Deci, E. L., & Ryan, R. M. (2002). 19: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431.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

- Hanser, S. B., & Thompson, L. W. (1994). Effects of a music therapy strategy on depressed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6), P265-P269.
- Knight, W. E., & Rickard, N. S. (2001). Relaxing music prevents stress-induced increases in subjective anxiety, sy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in healthy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music therapy*, 38(4), 254-272.
- Reeve, J. (200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John Wiley & Sons.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 Ryan, R. M., Avery, R. R., & Grolnick, W. S. (1985). A Rorschach assessment of children's mutuality of autonom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6-12.
-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
- Luyckx, K., Vansteenkiste, M., Goossens, L., & Duriez, B. (2009). Basic need satisfaction and identity formation: Bridg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process-oriented identit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76.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Emotional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Ensemble Classes**

Ga-Young Han · Seong-Chan Jo · Kyung-Hoon Ha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ensemble classes among a variety of liberal arts of universities when it comes to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emotional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ollege students have partially influenced their emotional adaptation. It is statically significant in order of negative relationship($\beta=-.405$), positive relationship($\beta=.207$), and competence($\beta=.193$). There is the partial moder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of ensemble classes on the emotional adaptation. Especially, the satisfaction of contents have influenced the following factors; competence($\beta=.150$), and negative relationship($\beta=.245$). Although competenc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ntents of classes, it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emotional adaptation. This study shows that cultivating human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liberal arts at universities and try to raise quality of emotional adaptation.

Key words: basic psychological needs, emotional adaptation, ensemble class, liberal arts, moderating effects

투고일: 2017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20일(7월 24일), 게재확정일: 8월 1일